

# 캔버라 한인성당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 견
25 (사랑의 하느님)	211 (주여 나의 몸과 맘)	151 (주여 임하소서)	200 (열절하신 주의 사랑)

제 1독서 | 이사야서 66,18-21

### 화답송 |

-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 (좌)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모든 겨레들아. ○
- (우) 우리 위한 주님 사랑 굳건하여라. 주님의 진실하심 영원하여라. ○

제 2독서 | 히브리서 12,5-7,11-13

### 복음 환호송 |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 ◎ 알렐루야

복음 | 루카 13,22-30

### 오늘의 목상 |

하느님의 구원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편하고 쉬운 길만은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당부하시며(루카 13,24), 그분의 말씀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삶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날 때 의미가 있으며, 좁은 길을 걷는 노력을 통해 비로소 완성됩니다.



## 오늘의 독서와 복음

### <제 1독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18 "나는 모든 민족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모으려 오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보리라.

19 나는 그들 가운데에 표징을 세우고 그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타르시스와 풋, 할 잘 쏘는 루드, 투발과 야완 등 뜻 민족들에게 보내고

나에 대하여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내 영광을 본 적도 없는 먼 섬들에 보내리니

그들은 민족들에게 나의 영광을 알리리라.

20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깨끗한 그릇에 제물을 담아 주님의 집으로 가져오듯이

그들도 모든 민족들에게서 너희 동포들을 주님에게 올리는 제물로 말과 수레와 마차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리라.

—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21 그러면 나는 그들 가운데에서 더러는 사제로 더러는 레위인으로 삼으리라.“

—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 <복음>

그때에 22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23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24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25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 버리면, 너희가 밖에서 '주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26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안심해도 돼. 아주 쉬운 일이야. 잘 닦인 멋진 고속도로가 있고, 그 끝에는 커다란 대문이 있을거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헛된 기대에 빼뜨리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좁은 문'에 대해 말씀하시죠.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하며, 이것은 결코 편안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좁은 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항상 책임, 곧 "노력"을 요구하고 복음에 따라 살고자 하는 확고하고 끈기 있는 의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성 바오로 사도는 이를 "믿음의 선한 싸움"(1티모 6,12)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노력은 매일 요구되는 것이고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이런 노력은 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 <제 2독서>

형제 여러분, 5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시면서 내리시는 권고를 잊어버렸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훈육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아도 낙심하지 마라.

6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를 훈육하시고 아들로 인정하시는 모든 이를 채찍질하신다."

7 여러분의 시련을 훈육으로 여겨 견디어 내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십니다.

아버지에게서 훈육을 받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11 모든 훈육이 당장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으로 훈련된 이들에게 평화와 의로움의 열매를 가져다줍니다.

12 그러므로 맥 풀린 손과 힘 빠진 무릎을 바로 세워 13 바른길을 달려가십시오.

그리하여 절름거리는 다리가 접질리지 않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27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께서 물려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28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29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칫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30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 ‘교의(Dogma)’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초대 신앙인들의 삶을 따라)

### 1) '교회의 아버지' 교부

성경 시대 이후, 교의(dogma)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그 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대 교회 교부들의 삶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머무르셨던 시기(기원후 약 1~33년경)가 지나고, 그분의 말씀과 행적은 제자들을 통해 구전되었습니다. 이후 50년부터 100년 사이에 복음서로 기록되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교 신앙은 점차 체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등장한 이들이 바로 우리가 '교부'(敎父, Pater Ecclesiae)라고 부르는, 신앙의 초기 길잡이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교부들이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정립된 교리나 공식 문헌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마다 성경을 다르게 이해하거나, 때로는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 해석의 오류는 교회 전체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성경 해석을 통해 교회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지닌 교부들은 매우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가르침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Rhetorica》에서 훌륭한 연설의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바로 로고스(Logos), 파토스(Pathos), 에토스(Ethos)입니다.

첫째, 로고스는 '논리'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도 철학적이고 이성적으로 타당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신론자나 다신론자들 앞에서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둘째, 파토스는 '감정' 또는 '공감'의 요소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논리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셋째, 에토스는 '말하는 이의 인격과 삶'입니다.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중에서도 에토스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초기 교부들은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를 모두 갖춘 인물들이었습니다. 특히 에토스, 즉 말과 삶의 일치를 보여 주었던 증거자들이었기에, 그들의 가르침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살아 있는 진리'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부들이 교회 학자이면서도 성인으로 선포된 이유는, 단지 교의를 정립한 학자에 머무르지 않고 복음을 자신의 삶으로 증언한 신앙의 증거자였기 때문입니다. 2~3세기의 여러 교부들은 백성들 가운데서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 말씀을 선포한 순교자이자 고백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의의 토대를 놓았을 뿐 아니라, 삶으로 그 진리를 증명해 보인 분들이었습니다.

### 2) 초대 교회의 신학적 의미

초대 교회는 오랜 기간 박해 속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신 이후 약 250년 동안은 간헐적인 박해가 이어졌고, 이후 313년까지는 매우 혹독한 박해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재위 284~305)는 교회를 파괴하고 성경을 불태우며 그리스도인을 감옥에 가두거나 처형하는 등 교회를 심각하게 탄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지하로 숨어 생활하거나 기꺼이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성인들의 순교를 단순히 영웅적이며 감동적인 사건으로만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초대 그리스도교 역사'가 지닌 깊고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순교의 시대는 단지 개인의 성덕이나 영웅적인 결단으로 이해될 것이 아니라, 당시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안으로 확장되어 갔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교가 공적으로 성장하고 내적으로 성숙해 갔던 신학적 사건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박해가 끝난 것은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면서부터입니다. 이로써 교회의 외적 상황은 극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나 순교의 시대가 남긴 신학적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물음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어떻게 시민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까?”

“무엇이 수많은 이들,  
심지어 정치 지도자들까지 개종하게 만들었을까?”

(다음주 주보에 계속) - Fr.전인걸 요한 보스코

## 공지 사항

### 1. 여정 ‘시즌 5’ 모임 안내

이번 ‘여정’은 ‘영화 및 다큐멘터리 모임’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 관한 영상을 각자 시청 후, 온라인 나눔 모임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총 4편의 영상, 약 1달 반 정도의 기간) 관심이 있으신 신자 분들께서는 성당 이메일 혹은 카카오톡 캠버라성당 채널 채팅을 통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 8월 27일(수)까지

- 시작 일시: 9월 3일(수), 저녁 7시 (줌 온라인)

### 2. 첫영성체 후 고해성사를 위한 교리교육 안내

첫영성체를 받았지만, 아직 첫 고해성사를 하지 않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고해성사(Sacrament of Confession) 교리를 9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리 시간: 주일 1:30PM~2:20PM). 아이들 교리교육을 희망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8월 30 일까지 성당 이메일 혹은 카카오톡 채널 채팅을 통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정 모임 때 시청할 영상 목록입니다.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도 아래 영상들을 유튜브에서 검색 (b와 d의 영화는 ‘Youtube 영화 대여’를 통하여 대여 가능) 하여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에디나와 함께한 4년 (KBS 스페셜) - (free)
- ‘바베톤의 만찬(Babette's Feast)’ 감독: 가브리엘 엑셀 (Youtube 대여 \$3.99)
- 세상 끝의 집 (카르투시오 봉쇄수도원) -다큐 (free)
- ‘침묵 (Silence)’, 감독: 마틴 스코세이지 (Youtube 대여 \$3.99)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것을 알아 두십시오. 모든 사람이 듣기는 빨리 하되, 말하기는 더디 하고 분노하기도 더디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19)

### | 미사 참례자 수 |

8월 10일	유아·청소년: 15명	성인: 45명
8월 17일	유아·청소년: 20명	성인: 50명

### | 온라인 묵주기도 모임 |

화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 퀸비얀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

일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3 West Ave, Queanbeyan, NSW

### | 미사 후 뒷정리 및 예물봉헌 |

이번주 (8월 24일)	마태오반
다음주 (8월 31일)	요한반

### | 봉헌금 & 교무금 | (8월 16일 ~ 8월 22일)

봉헌금	\$ 309			
교무금	\$ 550			
구민식	권묘순	서미숙	손재호	양명식
양홍석	안영규	윤현태	이지영	장호훈
정은영				

### | 기도 지향 |

- \* 임양녀 세실리아 자매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 \* 한영길 형제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 \* 강백일 형제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 \* 이근화 프란치스코 형제님 건강을 위해

###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